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

전북 후보자들 “내가 책임자”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첫 날인 28일, 전북 각 선거구 후보자들이 자신이 책임자라며 공식 유세를 시작했다.

먼저, 전주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이날 완산구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를 벌였다.

보수의 불모지인 전북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전주 갑 지역인 완산구 평화동 사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전주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후보는 효자동 KT전화국 사거리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효자동 효천사거리에서 유세지원단과 함께 양 손을 흔들며 선거운동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전주을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정 후보는 식발식과 함께 함가에



정운천 국민의힘 전주를 국회의원 후보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마치고 식발을 한 뒤 함가에 올라왔다.

민주당 김윤덕 · 이성운 · 정동영 후보 등 선거운동 시작 알려

국힘 정운천 후보, 함가에 올라... “尹 정권 향한 분노에 책임”

민주당 안호영 후보, 정희균 · 김정호 예비후보와 선대위 출범

올랐다. 전북소외의 아픔과 윤석열 는 의미라고 정 후보는 밝혔다. 전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동

영 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으며, 국민의힘 정희준 후보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해금당 사거리에서 오전 7시부터 출근길 유세를 벌였다.

정읍고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오전엔 고창 전통시장 입구, 오후엔 정읍 명동리류 사거리에서 각각 제22대 총선 윤준병 해결 캠프 출정식을 갖고 지역민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안주진안무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아침부터 삼례 우성아파트 앞에서 출근인사를 했고, 10시 삼례시장 유세에 이어 오후 1시 30분에 안주시 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상대였던 정희균 예비후보와 김정호 예비후보를 삼일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이어, 안주 봉동읍 둔산공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했다. /특별취재반

자치도 성공 과제·발전방안 논의

오늘까지 전북자치도-국무조정실 연계강화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국무조정실 연계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기환 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시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전북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시 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시지원단 전북지원과(무단장 정일환)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조율 지원이 중요했었던 만큼 앞으로 2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시행령 제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조실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의 ‘지방세 등 재정특례 발굴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출발한 워크숍은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의 국조실과의 협력과제 발표가 이어지면서 열린 토

론과 구체적 협의 논의의 장이 됐다. 재정특례 특강의 경우, 특별발굴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자체 세원 발굴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며, 도 과장들이 발표한 ‘전북자치도 공무원의 자세’, ‘2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대응’ 내용은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발전 에 대한 과제를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국조실의 ‘특별자치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역할 및 운영사례’ 발표는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계획 수립부터 전 단계에 걸친 국조실과 전북자치도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워크숍 둘째날은 새만금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취회하며 전북특별법에 반영한 새만금공용특구, 아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새만금 연계 조문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개발효과가 전북 전역에 긍정적인 변화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새만금 연계 조문 반영이 필요하다고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선대위, ‘슬림·실무형’으로 구성

중앙당 천명에 맞춰... 개인 밀착형 선거운동 시작

조국 대표 포함 비례대표 후보들, 권역 나눠 순회 방문

조국혁신당 ‘파란불꽃’ 전북선거대책위원회는 중앙당의 슬림형, 실무형 조직 천명에 맞춰 선대위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각자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선대위는 상임선대위원장 정도 상(도당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재규(부위원장), 상황실장 채주병(사무처장)을 각각 관할하기로 하고 올해 총선에서부터 허용된 개인 선거운동(25x25 소품 소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지지 정당/후보 홍보)을 현장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각 시군별로 지역 거점 구역을 돌며 개인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9번”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조국혁신당은 조

국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권역을 나눠 전국을 순회 방문하고 언론 인터뷰와 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비례후보만을 내는 정당은 유세차와 마이크를 운용할 수 없기에 조국혁신당의 선거운동은 얼굴을 맞대고 육성으로 호소하는 밀착형, 곳곳에 예고없이 출몰하는 번개형으로 색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전주시 송천동 전북도당 당사에서선 당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일정에 따라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SNS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쇼츠와 카드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새로운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도내 기초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가 2023회계연

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시의회는 28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서동수 의원(3선, 가 선거구)을 비롯해 김세중(세무사), 서창민(세무사), 김인생(퇴직공직자), 양경희(퇴직공직자) 등 총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낭비 사례,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서동수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재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무운영과 예산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위원 교육 이수 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필관 기자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의장 고경운)는 지난 27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할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으며, 송기순 의원을 대표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되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경운 의장은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정읍시의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기순 대표위원은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됐는지, 위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더욱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참여기업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성주 김제시장, 관련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제시, 모빌리티 투자 핵심 거점 부상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7개 모빌리티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지평선 제2산단·백구산단 내 4036억원 투자 496명 일자리 창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7개 모빌리티 선도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모빌리티산업 투자 핵심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28일 도청 회의실(4층)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하는 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성주시장과 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현재 조성 중인 김제 지평선 제2 산업단지(88만7,273㎡)와 백구 산업단지(33만16,322㎡)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7개 기업에서 4,039억원을 투자해 496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 제2 산업단지는 편리한 교통인프라, 여가시설, 주거환경 등 정주여건의 우수성으로 최상의 투자여건을 겸비하고 있고, 백구 산업단지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특장차 검사지원센터가 건립예정으로 특장차 연구·개발, 제작, 인증·검사가 윈스톱으로 가능한 유일지역이며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최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투자협약에는 자동차 부품 선제 도기업인 대승, 대승정밀, 일강, 친환경 건설기계를 개발·생산하는 HREX와 미래, 복지차량 및 전기 2층 전기버스 전문기업인 참림모아츠, 환경친화적 전문업체인 에이엘 특장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겸비한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기업이 이번 기회발

전을 위해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기회발전 특구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관련 특별법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지방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 격차를 해소하며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구 지정에는 법인세, 취득세, 상속세 감면 및 청년근로자(15~34세)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함께 국비 보조금 지원시 5% 가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주신 기업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최상의 투자 환경을 갖춘 김제 지평선 제2 산업단지·백구산단 단지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을 통해 모빌리티산업 투자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박노태 기자

한편 도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환경부서에서 평균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기술인중 전북환경기술인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높은 질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기술지원을 받게되는 38개 기업은 도내 10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군산 소재 기업이 8개소로 제일 많고 부안이 6개소, 익산과 정읍, 김제, 완주, 진안은 각각 4개소씩 신청을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24 중기 환경기술지원단’ 출범

전북자치도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28일 오후 1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환경기술지원단과 기술지원 신청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환경기술지원사업은 자금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전 진단을 통해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달 환경전문가를 배치해 무료로 기술

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술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전북자치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1,000개 기업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작년에는 중소기업 30개와 신규기업 6개소 등 총 45개 기업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백두이앤지 등 6개 사업장이 2억3000만원을 투자해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환경기술지원단은 박사급 전문가와

함께 도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환경부서에서 평균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기술인중 전북환경기술인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높은 질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기술지원을 받게되는 38개 기업은 도내 10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군산 소재 기업이 8개소로 제일 많고 부안이 6개소, 익산과 정읍, 김제, 완주, 진안은 각각 4개소씩 신청을 했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현안 점검

폐교활용복합문화공간 조성·시설원에 활성화 지원 등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6일 관내 주요사업장 6개소를 방문해 현안 문제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구축, 폐교활용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시설원에 활성화지원사업, 임실 봉황생태공원조성 사업, 성수산 산림레포츠 시설·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생안지구 앞들 개발사업 등 임실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임실군의 중심지인 봉황생태공원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주문했으며, 시설원에활성화지원사업 관련해 토마토 재배 농가



앞들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군민들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관촌초 상월분교 현장 방문에서는 학교 교실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노후건물로 인한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고 지적했다.

이성재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부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5일에 개최한 제335회 임시회 는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임실=진동명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